

독신생활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 부산지역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

구 명 숙* 홍 상 욱**

초 록

최근의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독신의 증가이다. 사회의 다양화로 인해 결혼과 가족생활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되면서 독신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독신자들의 실제생활과는 다른 사회적 편견과 억압은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독신의 성공적인 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른 연령층보다 개방적인 의식을 가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신생활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대학생들은 남녀의 독신생활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여성의 독신생활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 시각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여학생에게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생활의 자유 때문'에 독신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남학생은 '생계 및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여학생은 '결혼이 자신의 성장에 장애물'이 된다는 측면에서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독신생활에서 독신남성들은 가사 등 '일상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을 것이라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독신여성은 '사회적 편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독신의 증가 이유로 결혼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며, 결혼 못지 않게 자신의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일이나 자신에 대한 투자'로 인해 결혼은 유보하거나 포기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독신생활

* 신라대학교 강사

**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독신의 자유로움, 공간적 독립성, 일을 통한 자아성취감, 여가 및 자기개발 등에 긍정적 인식이, 몸이 아프거나 위급 시 등 지원 체계의 불안감, 제도적 압박감 등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대학생이 생각하는 독신에 대한 특성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독신에게 부여하는 가치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은 독신남녀 모두에게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학생의 시각이 더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되어 서구처럼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독신이 새로운 삶의 한 형태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독신자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용어 : 독신의 개념 및 유형, 독신생활에 대한 인식, 독신에 대한 고정관념

I. 서 론

최근 싱글 남녀 4명의 연애 스토리를 다룬 ‘싱글즈’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이상과 자유를 위해 소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결혼을 포기하고 싱글로 남는다. 이러한 선택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것일까? 사회의 다양화로 인해 결혼과 가족생활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되면서, 개인의 삶이 가족에 의해 통제되고 규정되던 과거와는 달리, 결혼에 얽매이지 않고 혼자만의 삶과 여유를 즐기려는 독신이 새로운 삶의 형태가 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2001)에 의하면 전체가구 중 독신가구의 변화 비율은 1980년 4.8%, 1990년 9.0%, 2000년 15.5%를 차지하여 8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신이 증가하는 현상으로는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대한 반발과 여성의 지위향상 및 경제적 자립, 자의식 확대, 이혼의 증가, 고령화의 상승 등이 이유일 수 있지만, 그 보다는 다양성이 인정되고 개성이 존중되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나”라는 중요성이 커지면서 ‘가정보다는 내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결혼보다 개인의 행복에 인생의 목표를 두는 개인주의적, 편의주의적, 또는 자유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새로운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장현숙, 2002). 독신의 증가로 사회문화적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 특히 독신자들은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구매력으로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이들을 위한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 전용 주거공간 등 싱글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간 6조원대에 이른다고 한다(세계일보, 2003. 7. 28).

이처럼 신(新)가족풍속도라 할 수 있는 독신의 삶에 대해 ‘화려하고 구속받지 않는 무한한 자유’로 묘사되고 있으며, ‘싱글족’, ‘코쿤 하우스(cocoon house)’, ‘개전(個電)제품’ 등 독신과 관련된 새로운 개념이나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윤소영, 2002), 독신자들을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모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독신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라이프스타일도 새로운 삶의 선택 대안으로 주목받게 되고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초라한 더블’의 삶보다 ‘화려한 싱글’의 삶이 나은 것일까? 개개인의 삶에서 독신이 주는 이점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별종’, ‘비주류’라고 보는 사회적 편견과 억압은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족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여 혼자 사는 독신의 형태를 일종의 이탈된 생활양식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독신을 진정한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신에 대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을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독신의 성공적인 생활적응은 무엇보다도 사회에서 독신의 특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른 연령층보다 개방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독신생활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은 어떠한지, 독신에 대한 이미지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독신에 대한 인식이 과연 달라지고 있는지,

달라지고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해 봄으로써 하나의 가족유형으로써 독신가구의 복지정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독신의 개념 및 유형

독신이란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혼, 사별까지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독신에 대한 개념은 결혼유무의 법적인 기준에만 의하여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 기준과 함께 사실적 혼인관계도 포함시킬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미혼독신자의 경우 결혼적령기를 지났으나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남성과 여성을 일컫는다. 여기서 독신자 자신의 결혼의도여부는 중요시되지 않고 결혼의식이나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근거로 한다는 입장이 있다(Elmer & Riley, 1974 ; 안병철, 1997 ; 김정옥, 1996). 반면, 법적인 기준 외에 사실적인 혼인관계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Austrom & Hanel, 1984), 이러한 입장에선 동거나 계약결혼 등은 독신의 분류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혼이나 사별에 의하여 독신이 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분류되므로, 독신이면서도 자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독신은 자녀가 없이 혼자인 경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박충선, 2002).

독신을 뜻하는 말로 영어권에서는 ‘never-married’, ‘unmarried’, ‘single’, ‘celibacy’ 등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용어들은 엄격하게는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never-married’, 혹은 ‘unmarried’는 결혼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single’은 미혼뿐만 아니라, 동거, 이혼, 사별 등 혼자 살고 있는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리고 ‘celibacy’는 종교적으로 독신으로 살기로 서약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독신이란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모든 상황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미혼독신만이 독신으로 인식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통념이나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정현숙·유계숙, 1998).

독신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법적인 혼인여부라고 할 수 있다. 즉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미혼독신, 이혼독신, 그리고 사별독신으로 나뉜다. 미혼독신은 결혼경험이 없는 경우이며, 이혼과 사별은 결혼한 후에 배우자와의 이혼 혹은 사별로 인하여 혼자 생활하게 된 경우이다. 또한 독신의 지속기간과 자발성의 여부에 따라서 자발적·일시적 독신(voluntary temporary singles), 자발적·안정적 독신(voluntary stable singles), 비자발적·일시적 독신(involuntary temporary singles), 비자발적·안정적 독신(involuntary stable singles)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tein, 1981).

자발적·일시적 독신은 결혼은 하겠지만 당분간 취업준비, 직업생활, 자신만의 생활을 위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유형이다. 자발적·안정적 독신은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독신생활을 선호하며 일생동안 독신생활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써 성직자이거나 혹은 이혼이나 사별에 의하여 독신이 된 사람들 중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이다. 비자발적·일시적 독신은 결혼을 원하지만 아직 배우자를 정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유형으로 미혼, 이혼, 별거, 사별상태에 있으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비자발적·안정적 독신은 결혼을 원하기는 하지만 배우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결혼적령기를 넘겼거나 결혼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 놓여서 독신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배우자 선택과정에서 어려운 경우나 혹은 노년기 혼자됨으로써 재혼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홀로된 노인의 경우가 많다.

독신을 선택하는 이들은 위의 한 가지 유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즉 독신의 삶을 어릴 때부터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원하고 결혼에 대

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상황이 결혼보다는 독신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독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2. 독신에 대한 고정관념

일반적으로 독신생활의 장점은 구속받지 않는 생활, 자유로움, 직업기회, 경제적 충족, 개인적 발달, 다양한 성적경험, 변화가 있는 즐거운 생활, 다양한 관심을 가진 새로운 친구와의 만남, 경제적 자율, 배우자·자녀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자유, 독립, 활기찬 생활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영숙·박경란, 2003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독신생활의 이점과는 달리 관련문헌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독신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경향임을 밝히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Etaugh & Malstrom, 1981)에서도 한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독신들은 기혼자들에 비해 안정적인 면과 신뢰적 측면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보편적으로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때문에 독신은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며, 또한 대다수의 독신은 결혼을 원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의기소침해 있으며 불행할 것이라고 가정한다(이영숙·박경란, 2003).

독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가장 흔하게 지적되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 우리 사회의 경우 독신의 성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시각에는 비교적 부정적이다. 또한 독신에 대한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 즉 “왜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 “아직도 혼자 살아?” 등은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독신이라고 하면 묘하게 달라지는 사람들이 편견 어린 시선은 때로 이들을 움츠리게 만들기도 하고 심한 경우 자기비하에 빠지게도 한다. 독신자들을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편견으로는 ‘어딘지 문제 있다’, ‘이기적이다’, ‘초라하다’ 등이 꼽힌다.

Cargan과 Melko(1982)는 독신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사회적 속설로서 다섯 측면을 지적하였다. 즉 독신자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에 매달려 있으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경제적으로 풍족하며, 독신자는 행복하

며, 그리고 결혼하기에는 무언가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또한 독신남녀들은 종종 ‘성숙하지 못하거나’, ‘변덕스러운’ 존재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이영숙·박경란, 2003).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를 보면, 가족을 그 짜임에 따라 부부와 조부모, 아이들의 3세대 가족과 부부와 아이들의 2세대 가족, 부부만의 1세대 가족, 그리고 독신가족으로 나누고 있다. 이처럼 아이들은 혼자 사는 독신도 가족의 한 형태임을 배우고 자라지만 사회 일부에서는 여전히 독신, 특히 독신여성을 이기적이라고 매도하거나 가족을 해체하는 존재로 폄하하는 인식이 남아있다(국민일보, 2004. 8. 26).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에 독신에 대한 시각에 변화를 가져왔다. 고독함보다는 자유로움, 불편함보다는 편리함, 공동체적 집단 의식보다는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자 하는 독신의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그에 따라 ‘미혼(未婚)’이 아닌 이혼이나 사별을 포함하는 ‘비혼(非婚)’으로 독신에 대한 칭호도 달라지고 있다. 이제 독신생활을 선호하는 행동이 더 이상 한 개인이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져, 또 다른 삶의 선택유형으로써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다.

3. 독신의 생활실태

독신생활의 만족도는 개인이 처한 상황과 조건, 즉 연령, 성별, 경제적 능력, 결혼 및 자녀유무, 사회적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장현숙(2002)의 연구에 의하면, 독신생활의 만족도는 거의 반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허전하다고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경우, 혼자 사는 독신생활이 만족스럽다고 하는 경우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경우, 그리고 독신생활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있다 또는 없다고 하는 경우가 거의 반반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독신들은 비교적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며, 낙천적이고, 사회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혼자 산다고 하여 감정의 조절 및 통제가 때때로 안 되어 변덕스러움을 보인다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며, 나이를 먹어간다는 사실에도 비교적 초연함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도 혼자 살고 있지만 이성친구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욕구를 지니고 있고, 남에게도 무관심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혼자 사는 독신이라 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거나, 특별히 자기 자신을 결혼 상대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과는 달리 성에 대해 자유로움은 보이지 않았다. 독신들은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족한 성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성에 대해 자유롭다고 하는 경우는 전체 독신자의 1/4에도 해당되지 않았으며, 성적 충동의 해결에 있어서도 대부분 적극적이지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신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자유로움이 높게 평가되었고, 또한 일을 통한 자아성취감, 여가 및 자기개발기회 증가로 인식되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과거에 비해 독신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도 많이 나아지고 있으며, 특히 독신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사라지고 있어 독신의 삶이 남녀 모두에게 대안적인 삶으로 평등하게 다가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건강, 경제, 그리고 노후생활 등에 남성보다는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저소득층일수록 불안감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박충선, 2002).

독신들의 시간사용 및 여가활용은 기혼자들에 비해 일에 몰두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은 적었고 소극적인 여가활동에 치우치는 것으로 나타나(윤소영, 2002), 자유롭게 다양한 여가생활을 하리라는 사회적 인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또한 독신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민으로는 직업의 안정성을 꼽았으며, 그 다음이 삶에 대한 가치관, 이성문제, 가족문제의 순으로 고민을 지적하고 있다(조선일보, 2001. 9. 5).

이상에서 독신자들은 대체로 생활의 자유로움과 자기개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감정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지만, 성적으로 자유롭지 않으며, 소득이 충족한 편이 아니며, 건강 및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여

가생활도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독신의 생활실태가 사회적 인식과 일치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2004년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3주간에 걸쳐 부산지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강의시간 동안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수거된 설문지 926부 중 불성실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설문지 45부를 제외한 총 881부만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남녀대학생들의 독신에 대한 인식과 고정관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 학년, 종교), 결혼에 대한 태도(결혼의 필요성, 배우자 선택의 유형, 배우자 선택의 조건, 결혼선택이유), 독신에 대한 태도(독신연령, 독신에 대한 선호도, 독신의 적합성, 독신선택이유, 독신의 장단점, 독신증가이유)와 독신에 대한 인식, 독신의 이유 및 독신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신에 대한 인식의 척도는 박충선(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13문항을 기초로 하여 긍정적 인식(7문항), 부정적 인식(6문항)을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 응답은 4점 Likert형 척도이다. 응답의 점수가 높을수록 독신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360$ 으로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독신의 이유에 대한 척도는 전옥실(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12문항을 기초로 하여 구성하였으며, 응답은 4점 Likert형 척도이다.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 = .7312$ 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독신에 대한 고정관념 문항은 이영숙·박경란(2003)의 연구에서 나타난 긍정적 특성 군집(45개)과 부정적 특성 군집(54)을 기초로 하여 긍정적 특성(20개), 부정적 특성(20개)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용 SPSS 10.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되었다. 일차적으로 각 변수의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chi-square test), t-test,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남녀 대학생으로 남성 203명(23.0%), 여성 678명(77.0%)으로 여성이 훨씬 많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 331명(37.6%), 2학년 427명(48.5%), 3학년 59명(6.7%), 4학년 64명(7.3%)으로 나타나 대학 1,2학년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42.6%가 "종교가 없다"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불교(36.0%), 기독교(15.1%), 천주교(5.8%)의 순이었다(표 1).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항	목	빈도(%)
성별	남성	203(23.0)
	여성	678(77.0)
	계	881(100.0)
학년	1학년	331(37.6)
	2학년	427(48.5)
	3학년	59(6.7)
	4학년	64(7.3)
	계	881(100.0)
종교	기독교	133(15.1)
	불교	317(36.0)
	천주교	51(5.8)
	기타	5(0.6)
	없음	375(42.6)
	계	881(100.0)

2. 결혼에 대한 태도

1) 결혼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성인의 남녀가 이성교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원하는 선택이 이루어지면 결혼에 이르게 된다. 결혼이란 그 형식과 절차를 달리한다고 해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인생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하나의 선택으로 바뀌어 가면서 결혼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남녀 대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표 2),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6.5%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가급적 하는 것이

좋다(40.2%)', '상황에 따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24.8%)',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18.5%)'에 높은 응답률을 보여 결혼이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대학생은 결혼을 '가급적 하는 것이 좋다(40.2%)'에 높은 응답율을 보였지만,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반드시 해야 한다'가 3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상황에 따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29.4%)',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21.6%)'에 남학생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결혼에 대해 여학생이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는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과 그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표 2> 성별에 따른 결혼의 필요성

단위 : 명(%)

	반드시 해야함	가급적 하는 것이 좋음	상황에 따라 안해도 상관없음	반드시 할 필요는 없음	전체
남성	81(39.9)	86(42.2)	19(9.4)	17(8.4)	203(100.0)
여성	64(9.5)	268(39.6)	199(29.4)	146(21.6)	677(100.0)
전체	145(16.5)	354(40.2)	218(24.8)	163(18.5)	880(100.0)

$\chi^2=128.144$, $df=3$, $p=.000$

2) 배우자 선택의 유형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여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선택은 대부분 청년기에 이루어져 그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부모와 가문의 영향력으로 이루어진 중매혼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본인의 자유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배우자 선택

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녀 대학생의 배우자 선택 유형은 거의 대부분이 ‘연애혼(79.7%)’을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절충혼(19.4%)’, 친지를 통한 ‘중매혼(0.6%)’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연애혼에서 남학생(87.7%)의 비율이 여학생(77.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중매혼과 연애혼의 중간형태인 절충혼에서는 여학생(21.8%)이 남학생(11.3%)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 친지를 통한 중매혼에, 여학생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중매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3).

<표 3> 성별에 따른 배우자 선택의 유형

단위 : 명(%)

	중매혼(친지)	중매혼 (결혼정보회사)	연애혼	절충혼 (중매+연애)	전체
남성	2(1.0)	-	178(87.7)	23(11.3)	203(100.0)
여성	3(0.4)	3(0.4)	524(77.3)	148(21.8)	678(100.0)
전체	5(0.6)	3(0.3)	702(79.7)	171(19.4)	881(100.0)

$\chi^2=12.701$, $df=3$, $p=.005$

3) 배우자 선택의 조건

서울지역 남녀 대학생 621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의 사회의식 및 라이프스타일 조사’에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격(49.3%)’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인 능력(15.6%), 성장환경 및 배경(15.1%)이 뒤를 이었으며 ‘외모’는 6.4%에 불과했다(내일신문, 2004. 9. 20).

이상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남녀 대학생은 배우자 선택의 우선조건으로 ‘성격(43.3%)’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

으로 ‘경제력(32.7%)’, ‘장래성(14.4%)’, ‘외모(3.0%)’, ‘궁합(2.3%)’, ‘종교(2.0)’의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과거 배우자 선택시 중요한 사항이었던 ‘집안배경’이라든지 ‘학벌’ 등에는 소수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배우자 선택의 조건 역시 남녀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 ‘성격(66.6%)’, ‘궁합(6.4%)’, ‘외모(4.9%)’, ‘건강(2.5%)’ 등에서 여학생보다 우선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여학생은 ‘경제력(39.1%)’과 그와 관련된 ‘장래성(17.0%)’, ‘집안배경(0.7%)’ 등을 배우자 선택의 우선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표 4> 성별에 따른 배우자 선택의 조건

단위 : 명(%)

	외모	경제력	성격	집안배경	종교	유머감각	학벌	건강	장래성	궁합	기타
남성	10(4.9)	23(11.3)	134(66.0)	1(0.5)	3(1.5)	-	1(0.5)	5(2.5)	12(5.9)	13(6.4)	1(0.5)
여성	16(2.4)	265(39.1)	247(36.5)	5(0.7)	15(2.2)	1(0.1)	1(0.1)	4(0.6)	115(17.0)	7(1.0)	1(0.5)
전체	26(3.0)	288(32.7)	381(43.3)	6(0.7)	18(2.0)	1(0.1)	2(0.2)	9(1.0)	127(14.4)	20(2.3)	2(0.2)

$\chi^2=112.761$, $df=10$, $p=.000$

4)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

남녀 대학생에게 만약 본인이 결혼을 선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3.9%가 ‘정서적·경제적 안정을 위해’ 결혼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42.6%)’, ‘자녀를 갖기 위해서(1.8%)’, ‘합법적인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0.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로 ‘사랑하기 때문에(49.3%)’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여학생은 ‘정서적·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56.5%)’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표 5).

<표 5> 성별에 따른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

단위 : 명(%)

	사랑하므로	자녀를 갖기 위해	정서적·경제 적 안정	사회적 의무	합법적 성생활	기타	전체
남성	100(49.3)	4(2.0)	92(45.3)	1(0.5)	6(3.0)	-	203(100.0)
여성	275(40.6)	12(1.8)	383(56.5)	3(0.4)	2(0.3)	3(0.4)	678(100.0)
전체	375(42.6)	16(1.8)	475(53.9)	4(0.5)	8(0.9)	3(0.3)	881(100.0)

$\chi^2=19.514$, $df=5$, $p=.002$

3. 독신생활에 대한 태도

1) 독신의 연령

독신의 연령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한 연구(김애순, 1994)에서는 독신의 분기점을 35세로 보았으며, 또한 20-40세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남성은 32.5세, 여성은 29.2세를 넘으면 노총각, 노처녀로 인식한다는 보고도 있다(조선일보, 1997). 그리고 미혼독신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옥귀주, 1999)에서는 독신남성은 32.9세, 독신여성은 29.8세로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남녀 대학생은 미혼독신의 연령기준을 남성은 33.95세, 여성은 31.54세로 인식하고 있으며(표 6),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연령보다 남녀 모두 조금씩 높아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초혼연령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표 6> 성별에 따른 미혼독신 연령기준

단위 : 세

	독신남성	독신여성
남성	33.42	30.92
여성	34.11	31.73
전체	33.95	31.54
t	-2.450*	-3.002**

*p<.05 **p<.01 ***p<.001

2) 독신생활에 대한 선호도

표 7에 의하면, 남녀 대학생은 남성의 독신생활에 대해 71.5%(‘약간 반대’ 포함)가 반대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찬성하는 비율은 28.5%(‘약간 찬성’ 포함)로 나타났다. 여성의 독신생활에 대해서는 반대의 비율이 48.9%(‘약간 반대’ 포함)이며, 찬성하는 입장이 51.1%(‘약간 찬성’ 포함)로 나타났다. 즉 남녀 대학생은 독신생활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하나, 강력하게 반대(독신남성 : 8.6%, 독신여성 : 8.3%)하는 비율이 소수로 나타나 독신생활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성의 독신생활(4점 Likert 척도, 평균 2.23)보다는 여성의 독신생활(평균 2.50)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약간 반대’ 입장을 포함해서 남성의 독신생활(73.3%)은 물론 여성의 독신생활(72.3%)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 응답자 중 24.3%는 여성의 독신생활을 매우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여학생은 남성의 독신생활에는 반대하는 비율(71.0%)이 높게 나타났지만, 여성의 독신생활에는 5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남성보다는 여성의 독신생활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기대되는 성역할에 의해 남성은 혼자살기에 적합하지

않고 더구나 가사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학생이 여성의 독신생활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결혼으로 인한 불합리성, 즉 독신이 주는 보상효과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성별에 따른 독신생활 선호도

단위 : 명(%)

		매우반대	약간반대	약간찬성	매우찬성	평균	통계치
독신 남성	남성	33(16.3)	115(56.9)	45(22.3)	9(4.5)	2.15	$\chi^2=22.280$ df=3, p=.000
	여성	42(6.3)	433(64.7)	176(26.3)	18(2.7)	2.25	
	전체	75(8.6)	548(62.9)	221(25.4)	27(3.1)	2.23	
독신 여성	남성	49(24.3)	97(48.0)	46(22.8)	10(5.0)	2.08	$\chi^2=113.873$ df=3, p=.000
	여성	23(3.4)	257(38.4)	339(50.6)	51(7.6)	2.62	
	전체	72(8.3)	354(40.6)	385(44.2)	61(7.0)	2.50	

3) 독신생활의 적합성

남녀 대학생에게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독신생활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지를 질문한 결과, ‘둘다 모두’ 적합하다는 응답이 43.2%이며, 그 다음으로 ‘여성(34.0%)’, ‘남성(6.7%)’이 적합하다는 응답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옥귀주, 1999 ; 전옥실, 2000)에서 여성이 더 적합하다고 응답한 것과는 다르게 지각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일상생활에 편리한 가전제품의 개발, 다양한 인스턴트식품 및 외식산업, 그밖에 가사노동을 편리하게 대행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독신생활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표 8).

<표 8> 성별에 따른 독신생활 적합성

단위 : 명(%)

	남성	여성	둘다 모두	잘 모름	전체
남성	21(10.3)	41(20.2)	89(43.8)	52(25.6)	203(100.0)
여성	38(5.6)	258(38.1)	291(43.0)	90(13.3)	677(100.0)
전체	59(6.7)	299(34.0)	380(43.2)	142(16.1)	880(100.0)

 $\chi^2=34.684$, $df=3$, $p=.000$

4) 독신생활을 선택하는 이유

최근 결혼의 당위성은 퇴색되고 결혼-독신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선택의 가능성은 극대화되었다. 대학생들에게 만약 자신이 독신을 선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생활의 자유'라는 응답이 67.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결혼이 자기 성장 방해(12.1%)', '자신만 책임지기 위해(8.8%)', '다양한 이성관계를 위해(4.8%)', '경제적 능력부족(3.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대학생은 생활의 자유를 위해서 독신을 선택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그 다음으로 남학생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능력부족, 자기 자신만 책임지기 위해, 다양한 이성관계를 위해 등에, 반면 여학생은 생활의 자유를 위해, 결혼이 자기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 등에 더 높게 나타나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아직도 사회문화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성역할고정관념이 결혼으로 인한 가족역할에 부담으로 여겨져 결혼보다는 독신으로 남게 될 확률을 더 높이고 있는 것 같다(표 9).

또한 남녀 대학생의 독신생활 선호 여부에 따라 독신을 선택하는 이유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남성의 독신생활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남녀 대학생들은 독신을 선택하는 이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 독신생활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남녀 대학생들은 독신을 선택하는 이유로 생활의 자유(67.2%), 결혼이 자기성장 방해

(12.1%), 자신만 책임지기 위해(8.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지만, 여성의 독신생활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부족, 다양한 이성관계, 자신만 책임지기 위해 등에 약간 높은 응답율을 보여 여성 독신생활 선호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0).

<표 9> 성별에 따른 대학생이 독신을 선택하는 이유

단위 : 명(%)

	생활의 자유	결혼이 자기 성장방해	다양한 이성관계	자신만 책임지기 위해	경제적 능력부족	기타	전체
남성	112(55.4)	10(5.0)	18(8.9)	24(11.9)	28(13.9)	10(5.0)	202(100.0)
여성	475(70.8)	96(14.3)	24(3.6)	53(7.9)	5(0.7)	18(2.7)	671(100.0)
전체	587(67.2)	106(12.1)	42(4.8)	77(8.8)	33(3.8)	28(3.2)	873(100.0)

$\chi^2=101.756$, $df=5$, $p=.000$

<표 10> 독신생활 선호도에 따른 대학생이 독신을 선택하는 이유

단위 : 명(%)

		생활의 자유	결혼이 자기 성장방해	다양한 이성관계	자신만 책임지기 위해	경제적 능력부족	기타	전체
독신여성	반대	279(66.3)	36(8.6)	26(6.2)	38(9.0)	27(6.4)	15(3.6)	421(100.0)
	찬성	304(68.6)	67(15.1)	15(3.4)	38(8.6)	6(1.4)	13(2.9)	443(100.0)
	전체	583(67.5)	103(11.9)	41(4.7)	76(8.8)	33(3.8)	28(3.2)	864(100.0)

$\chi^2=26.317$, $df=5$, $p=.000$

그리고 남녀 대학생에게 자기 자신이 아닌 현재 독신생활을 하고 있는 독신자들이 독신을 선택한 이유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자유로운 생활 때문(3.0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이성이나 결혼에 대한 흥미상실(3.01)’, ‘결혼상대자를 만나지 못함(2.87)’, ‘부모의 불행한 결혼생활(2.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앙생활, 이성교제 부족 등은 독신을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이성교제 부족, 신체적인 결함, 실연이나 혼전성경험의 상처, 결혼할 수 없는 사람과의 사랑을 제외한 8개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신앙생활, 결혼비용 없음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표 11).

<표 11> 대학생이 지각하는 독신자들의 독신 선택 이유

단위 : 명(%)

항목	평균			t
	남성	여성	전체	
직업이나 학업에 몰두	2.40	2.66	2.61	-5.126***
이성교제 부족	2.08	2.11	2.10	-0.501
신체적인 결함	2.58	2.48	2.50	1.939
실연이나 혼전 성경험의 상처	2.41	2.42	2.42	-0.244
신앙생활	2.12	1.95	1.99	2.521*
결혼상대자를 만나지 못함	2.77	2.91	2.87	-2.711**
자녀양육/가족에 대한 부담감	2.47	2.59	2.56	-2.354*
결혼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랑	2.26	2.33	2.32	-1.258
이성이나 결혼에 흥미상실	2.87	3.04	3.01	-3.580***
부모의 불행한 결혼생활	2.67	2.83	2.80	-2.984**
자유로운 생활	2.89	3.08	3.04	-3.806***
결혼비용 없음	2.35	2.20	2.23	2.487*

*p<.05 **p<.01 ***p<.001

5) 독신생활의 장단점

대학생이 생각하는 독신생활의 장점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독신남성은 ‘가정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탈피(39.7%)’, 독신여성은 ‘일과 자신에 대한 투자(53.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독신생활의 장점으로 독신남성에 대해서는 ‘일상의 자유(38.9%)’, ‘일과 자신에 대한 투자(29.1%)’, ‘가정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탈피(26.6%)’ 순으로, 독신여성은 ‘일과 자신에 대한 투자(44.3%)’, ‘일상의 자유(28.1%)’, ‘가정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탈피(21.7%)’ 등에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에 독신남성은 ‘가정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탈피(43.6%)’, ‘일과 자신에 대한 투자(40.5)’, ‘일상의 자유(19.2%)’ 순으로, 독신여성에 대해서는 남학생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일과 자신에 대한 투자와 일상의 자유에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가정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탈피에서는 남학생보다 낮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표 12).

<표 12> 성별에 따른 독신생활의 장점

단위 : 명(%)

		일상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율성	일과 자신에 대한 투자	가정의 부담감으로부터 탈피	기타	통계치
독신남성	남성	79(38.9)	7(3.4)	59(29.1)	54(26.6)	4(2.0)	$\chi^2=79.875$ df=4, p=.000
	여성	90(13.3)	16(2.4)	274(40.5)	295(43.6)	1(0.1)	
전체		169(19.2)	23(2.6)	333(37.9)	349(39.7)	5(0.6)	
독신여성	남성	57(28.1)	7(3.4)	90(44.3)	44(21.7)	5(2.5)	$\chi^2=33.302$ df=4, p=.000
	여성	202(29.8)	18(2.7)	380(56.1)	77(11.4)	-	
전체		259(29.4)	25(2.8)	470(53.4)	121(13.8)	5(0.6)	

또한 남녀 대학생은 독신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독신남성에 대해서는 ‘일상의 어려움(42.2%)’이라고 응답하여 독신여성의 5.7%보다 훨씬

더 높은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앞서 독신에 대한 선호도 및 독신생활의 적합성에서도 나타났듯이 남성은 성역할 사회화로 인해 가사일을 제대로 배울 기회조차 없었던 결과라고 생각된다. 반면 독신여성의 가장 어려운 점은 ‘사회적 편견(39.8%)’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독신남성의 9.9%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이는 미혼 독신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옥귀주, 1999)에서 독신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사회적 차별, 왜곡된 시선’인 것과 동일하게 나타나 독신남성보다는 독신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독신남녀 모두에 대해 ‘심리적 고독감’이다.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한겨레21, 1995)에서 독신이 결혼보다 좋지 않은 점은 ‘고립 또는 고독감’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고독감에 대해 남녀 대학생은 독신남성(25.9%)이 독신여성(23.9%)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남성이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은 일과 직업에서 만족을 얻고 여성은 관계에서 만족을 얻는 경향이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고독을 견디며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세 번째로 독신남성은 ‘성욕해결의 곤란(10.6%)’, 독신여성은 노후관련 문제와 도둑 등과 같은 ‘심리적 불안감(21.0%)’ 때문에 독신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대학생은 인식하고 있었다. 독신남성이 독신여성보다 성욕해결에 있어서 어려움을 더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여성은 성에 대해 터부시해야 하며 수동적이어서 성적욕구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남성은 성적욕구를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통념으로 인해 독신남성의 성욕해결이 더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외에 독신남성의 어려움으로 사회적 편견, 심리적 불안감 등이 있었고, 독신여성은 일상의 어려움, 성적편견과 갈등 등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표 13).

<표 13> 성별에 따른 독신생활의 단점

단위 : 명(%)

		사회적 편견	심리적 불안감	심리적 고독감	일상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성적 편견과 갈등	성욕 해결 곤란	기 타	통계치
독 신 남 성	남성	23(11.3)	22(10.8)	73(36.0)	65(32.0)	2(1.0)	5(2.5)	12(5.9)	1(0.5)	$\chi^2=30.450$ df=7 p=.000
	여성	64(9.5)	40(5.9)	154(22.9)	305(45.3)	3(0.4)	25(3.7)	81(12.0)	1(0.1)	
	전체	87(9.9)	62(7.1)	227(25.9)	379(42.2)	5(0.6)	30(3.4)	93(10.6)	2(0.2)	
독 신 여 성	남성	80(39.4)	36(17.7)	49(24.1)	15(7.4)	5(2.5)	9(4.4)	7(3.4)	2(1.0)	$\chi^2=29.822$ df=7 p=.000
	여성	270(39.9)	149(22.0)	161(23.8)	35(5.2)	31(4.6)	30(4.4)	1(0.1)	-	
	전체	350(39.8)	185(21.0)	210(23.9)	50(5.7)	36(4.1)	39(4.4)	8(0.9)	2(0.2)	

6) 독신의 증가 이유

표 14에서 대학생들은 독신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로 대다수가 ‘일과 자신에 대한 투자(78.3%)’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최근 결혼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며, 결혼 못지 않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유보 또는 포기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이성과 결혼에 대한 흥미부족’, ‘실연 또는 혼전 성경험과 같은 상처’, ‘결혼기회의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일과 자신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다른 변인들에 소수이지만 여학생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일과 자신에 대한 투자’에 82.6%의 높은 응답율을 보여 결혼이 여성의 자기개발 및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14> 성별에 따른 독신의 증가 이유

단위 : 명(%)

	결혼기회 부족	흥미부족 (이성, 결혼)	부모의 영향	상처(실연 , 혼전경험)	종교적 편견	자신에 대한 투자	기타
남성	10(4.9)	36(17.7)	3(1.5)	9(4.4)	3(1.5)	130(64.0)	12(5.9)
여성	9(1.3)	69(10.2)	8(1.2)	18(2.7)	1(0.1)	559(82.6)	13(1.9)
전체	19(2.2)	105(11.9)	11(1.3)	27(3.1)	4(0.5)	689(78.3)	25(2.8)

 $\chi^2=40.199$, $df=6$, $p=.000$

4. 독신생활에 대한 인식

대학생들에게 현재 독신자들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어떠한지를 표 15에서 살펴 본 결과, 공간적 독립, 독신의 자유로움, 자신만의 일에 몰두, 여가 및 자기개발 등에 긍정적 인식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몸이 아프거나 위급시의 지원체계에 대한 불안감, 제도적인 압력, 노후생활 불안감 등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이는 독신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박충선, 2002)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독신생활에 대한 인식에서 여학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일과 직장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다(남 : 2.79, 여 : 3.27)’, ‘나만의 공간이 있어서 좋다(남 : 3.01, 여 : 3.33)’, ‘언제 어디로든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다(남 : 2.87, 여 : 3.24)’, ‘여가 및 취미활동을 통한 자기개발(남 : 2.90, 여 : 3.21)’ 등에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독신생활이 일과 직장의 이중부담으로 시달리는 여성에게 자아성취감과 더불어 공간적 독립성 및 여가활동 등으로 자기개발의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독신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는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주위의 결혼압력이나 성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 등 결혼제도를 거부하는 데서 오는 압박감에 대한 인식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우가 더

심하였다. 과거에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부모님이나 주위사람으로부터의 결혼에 대한 압력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여성들의 결혼 또는 독신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남성들은 여전히 부계 중심의 가치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여학생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감,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 등의 인식 정도가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복지지원체계가 여전히 가족 중심적이며, ‘선 가족 후 사회’라는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의 기반이 없는 독신들이 안고 있는 지원체계에 대한 불안감은 매우 당연하다. 특히 노후에 독신여성의 경우 평균수명은 높고 연금이나 기타 복지지원이 미비한 상태에서 홀로 자신을 보호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대부분의 복지서비스 및 정책은 남성 중심적이므로 독신여성은 여성과 독신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박충선, 2002).

<표 15> 독신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단위 : 명(%)

항 목		평균			t
		남성	여성	전체	
긍정적 인식	무엇인가 결정할 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서 좋을 것이다	2.64	2.74	2.71	-1.699
	가족에 대한 부양감이나 책임감이 없어서 좋을 것이다	2.72	2.84	2.82	-2.288*
	가고 싶은 곳은 언제 어디로든지 갈 수 있어서 좋을 것이다	2.87	3.24	3.16	-7.096* **
	나만의 공간이 있어서 좋을 것이다	3.01	3.33	3.26	-6.321* **
	내가 하는 일과 직장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을 것이다	2.79	3.27	3.16	-9.174* **
	여가 및 취미활동을 통해 자기개발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이다	2.90	3.21	3.13	-5.444* **
	생활의 변화나 융통성이 많아서 좋을 것이다	2.59	2.78	2.73	-3.205* **

항 목		평균			t
		남성	여성	전체	
부정적 인식	부모님이나 주위사람의 결혼하라는 압력이 힘들 것이다	2.95	2.92	2.92	0.492
	몸이 아프거나 위급시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 것이다	3.15	3.20	3.19	-0.910
	경제적인 불안감이 있어 힘들 것이다	2.31	2.41	2.38	-1.589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힘들 것이다	2.84	2.86	2.86	-0.340
	명절이나 휴일에 혼자 있어야 하는 것이 힘들 것이다	2.85	2.73	2.76	1.788
	사회에서 성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힘들 것이다	2.08	1.99	2.01	1.349

*p<.05 **p<.01 ***p<.001

5. 독신에 대한 고정관념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결혼한 사람을 진정한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적령기를 지나 독신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진정한 성인이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 왔으며, 그 결과 독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압박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독신들을 ‘화려한 싱글’ 또는 ‘자유로운 솔로’ 등의 표현으로 많이 언급되거나 지칭되고 있다. 독신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시각은 주요 사회제도와 대중매체에 의해서 강화 보급되어 독신에 대한 과장된 편견이나 잘못된 이해를 초래하고 있다(이영숙·박경란, 2003).

표 16에서 독신에 대한 고정관념을 전반적으로 볼 때, 대학생의 독신에 대한 고정관념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독신에게 부여하는 가치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은 독신남녀 모두에게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대학생이 생각하는 독신에 대한 고정관념 순위

n=881

독신남성			독신여성		
분류	빈도	%	분류	빈도	%
자유스러운	483	54.8	당당한	568	64.5
결혼에 관심 없는	476	54.0	일에 열중하는	556	63.1
일에 열중하는	466	52.9	자유스러운	550	62.4
결혼시기를 놓친	441	50.1	전문직을 가진	538	61.1
자기중심적인	420	47.7	콧대가 높은	537	61.0
전문직을 가진	384	43.6	활동적인	500	56.8
콧대가 높은	361	41.0	결혼에 관심 없는	449	51.0
까다로운	356	40.4	결혼시기를 놓친	405	46.0
활동적인	333	37.8	개방적인	381	43.2
개방적인	310	35.2	자기중심적인	364	41.3

1) 독신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

대학생이 생각하는 독신에 대한 긍정적인 특성들을 독신남성과 독신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17). 독신남성에 대한 긍정적인 특성들을 순위별로 10가지만 나열해 보면, 자유스러운, 결혼에 관심 없는, 일에 열중하는, 전문직을 가진, 활동적인, 개방적인, 이성관계가 복잡한, 개성이 강한, 여유로운, 당당한 등이고, 독신여성에 대해서는 당당한, 일에 열중하는, 자유스러운, 전문직을 가진, 활동적인, 결혼에 관심이 없는, 개방적인, 개성이 강한, 여유로운, 의지가 강한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독신에 대해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최근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독신남녀를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나 또는 개방적인 성향을 지닌 자유주의자로 특징짓기도 하는 데 이러한 특성을 대학생들은 독신의 긍정

적인 측면으로 여기는 것 같다. 최근 한 연구(박충선, 2002)에서 독신자 자신이 독신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우며 불만을 지적한 것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나 독신자들 자신의 인식변화와 함께 일반인의 독신에 대한 지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7> 성별에 따른 독신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복수응답)

단위 : 명(%)

	독신남성			독신여성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이성적인	26(12.8)	77(11.4)	103(11.7)	40(19.7)	132(19.5)	172(19.5)
여유로운	72(35.5)	183(27.0)	255(28.9)	53(26.1)	248(36.6)	301(34.2)
자유스러운	132(65.0)	351(51.8)	483(54.8)	108(53.2)	442(65.2)	550(62.4)
당당한	53(26.1)	176(26.0)	229(26.0)	108(53.2)	460(67.8)	568(64.5)
활동적인	85(41.9)	248(36.6)	333(37.8)	94(46.3)	406(59.9)	500(56.8)
멋있는	26(12.8)	66(9.7)	92(10.4)	33(16.3)	253(37.3)	286(32.5)
결혼에 관심 없는	111(54.7)	365(53.8)	476(54.0)	121(59.6)	328(48.4)	449(51.0)
완벽한	15(7.4)	113(16.7)	128(14.5)	32(15.8)	195(28.8)	227(25.8)
반틈없는	14(6.9)	127(18.7)	141(16.0)	49(24.1)	163(24.0)	212(24.1)
이성관계가 다양한	82(40.4)	227(33.5)	309(35.1)	52(25.6)	51(7.5)	103(11.7)
전문직을 가진	82(40.4)	302(44.5)	384(43.6)	101(49.8)	437(64.5)	538(61.1)
의지가 강한	44(21.7)	127(18.7)	171(19.4)	60(29.6)	240(35.4)	300(34.1)
일에 열중하는	107(52.7)	359(52.9)	466(52.9)	115(56.7)	441(65.0)	556(63.1)
과감한	25(12.3)	58(8.6)	83(9.4)	36(17.7)	135(19.9)	171(19.4)
도발적인	19(9.4)	45(6.6)	64(7.3)	36(17.7)	117(17.3)	153(17.4)
개방적인	78(38.4)	232(34.2)	310(35.2)	79(38.9)	302(44.5)	381(43.2)
화려한	13(6.4)	49(7.2)	62(7.0)	35(17.2)	175(25.8)	210(23.8)
개성이 강한	79(38.9)	185(27.3)	264(30.0)	83(40.9)	265(39.1)	348(39.5)
편안한	27(13.3)	29(4.3)	56(6.4)	13(6.4)	52(7.7)	65(7.4)
지적인	13(6.4)	65(9.6)	78(8.9)	40(19.7)	156(23.0)	196(22.2)

2) 독신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표 18>에서 남녀 대학생이 독신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인 특성을 살펴 보면, 독신남성에 대해서는 결혼시기를 놓친, 자기중심적인, 콧대가 높은, 까다로운, 결벽증 있는, 문제가 있는, 고집스러운, 불쌍한, 초라한, 잘난척하는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신여성에 대한 특성들로는 콧대가 높은, 결혼시기를 놓친, 자기중심적인, 까다로운, 고집스러운, 욕심이 많은, 잘난척하는, 독한, 결벽증 있는, 문제가 있는 등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독신남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낮게 나타남을 물론, 특히 독신여성에 대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많이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표 18> 성별에 따른 독신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복수응답)

단위 : 명(%)

	독신남성			독신여성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답답한	61(30.0)	117(17.3)	178(20.2)	45(22.2)	34(5.0)	79(9.0)
불쌍한	79(38.9)	165(24.3)	244(27.7)	64(31.5)	41(6.0)	105(11.9)
매력 없는	51(25.1)	142(20.9)	193(21.9)	60(29.6)	85(12.5)	145(16.5)
초라한	63(31.0)	177(26.1)	240(27.2)	48(23.6)	55(8.1)	103(11.7)
게으른	43(21.2)	84(12.4)	127(14.4)	34(16.7)	23(3.4)	57(6.5)
결혼시기를 놓친	104(51.2)	337(49.7)	441(50.1)	112(55.2)	293(43.2)	405(46.0)
문제가 있는	71(35.0)	213(31.4)	284(32.2)	62(30.5)	71(10.5)	133(15.1)
위험한	23(11.3)	76(11.2)	99(11.2)	24(11.8)	26(3.8)	50(5.7)
자기중심적인	89(43.8)	331(48.8)	420(47.7)	83(40.9)	281(41.4)	364(41.3)
까다로운	70(34.5)	286(42.2)	356(40.4)	81(39.9)	223(32.9)	304(34.5)
잘난척하는	45(22.2)	172(25.4)	217(24.6)	69(34.0)	164(24.2)	233(26.4)
결벽증 있는	55(27.1)	240(35.4)	295(33.5)	56(27.6)	126(18.6)	182(20.7)
소심한	43(21.2)	113(16.7)	156(17.7)	20(9.9)	35(5.2)	55(6.2)
어리석은	39(19.2)	60(8.8)	99(11.2)	37(18.2)	18(2.7)	55(6.2)

	독신남성			독신여성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아이 같은	13(6.4)	37(5.5)	50(5.7)	10(4.9)	25(3.7)	35(4.0)
거친	22(10.8)	83(12.2)	105(11.9)	20(9.9)	19(2.8)	39(4.4)
독한	39(19.2)	106(15.6)	145(16.5)	59(29.1)	125(18.4)	184(20.9)
콧대가 높은	76(37.4)	285(42.0)	361(41.0)	120(59.1)	417(61.5)	537(61.0)
욕심이 많은	42(20.7)	146(21.5)	188(21.3)	66(32.5)	189(27.9)	255(28.9)
고집스러운	66(32.5)	195(28.8)	261(29.6)	83(40.9)	185(27.3)	268(30.4)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독신의 성공적인 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른 연령층보다 개방적인 의식을 가진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독신생활에 대한 인식과 고정관념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대학생은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결혼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 선택유형으로는 연애혼을 선호하였고, 배우자 선택 시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성격이라고 응답했으나, 여학생은 경제력, 장래성, 집안배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남학생은 사랑하기 때문에, 여학생은 정서적·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은 남녀의 독신생활에 대해서 아직도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여성의 독신생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여학생에게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독신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남녀 모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독신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생활의 자유로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은 생계 및 가족을 부양해야 한

다는 측면에서, 여학생은 결혼이 자신의 성장에 장애가 된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독신남성들은 가사 등 일상의 어려움, 독신여성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독신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일이나 자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신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서는 생활의 자유로움, 공간적 독립성, 일을 통한 자아성취감, 여가 및 자기개발 등에 긍정적 인식이, 몸이 아프거나 위급시 등 지원체계의 불안감, 제도적 압박감 등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먼저 독신생활의 자유로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그러나 일을 통한 자아성취감, 공간적 독립성, 여가 및 자기개발의 기회가 증가한다는 인식은 성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인식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몸이 아프거나 위급시의 지원체계에 대한 불안감, 제도적인 압력, 노후생활 불안감 등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넷째, 대학생이 생각하는 독신에 대한 고정관념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독신에게 부여하는 가치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은 독신남녀 모두에게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학생의 시각이 더 긍정적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독신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보다는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며, 실제 독신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과거와는 다른 시각의 변화를 엿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일반인들에게 까지 확산되어 독신을 다양한 생활유형의 하나로 발전시키며 독신을 누구든 원하면 실행 가능한 선택으로 인정하게 되어, 독신생활을 특별한 삶의 형태가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독신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성공적인 독신생활을 위해 우리나라도 서구처럼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사회에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독신은 이

제 새로운 삶의 한 형태이므로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식과 제도적인 면에서 새로운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독신의 경우 여성이 다수이므로 기존의 남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전제로 상대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임금이 많았던 만큼 여성에게도 동등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주기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독신을 경험하게 되므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에 돌아 갈 수 있는 독신에 대한 복지 및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으며, 이에 대한 보완·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또한 대학의 1,2학년 및 여학생이 과잉대표되어 조사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에 다양한 연령층의 독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봄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기술적인 통계 방법에 의한 경향분석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인구통계학적 변인 외에 라이프스타일, 가치관 등과 같은 특성을 고려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애순(1994). 독신, 그 무한한 자유. 서울 : 고려원 미디어.
- 노창숙(1997). 독신이 아니라 독립이다. 서울 : 새삶.
- 박정윤 · 김진희(2002). 독신가족의 가족복지 욕구분석을 위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10호.
- 박충선(2002). 독신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0권 6호.
- 변화순 · 송다영 · 김영란(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신은식(2002). 독신미혼여성의 노후관련인식과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심영(2002). 독신가구의 경제생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0권 6호.
- 옥귀주(1999). 미혼독신자의 생활실태와 만족·불만족 수준.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은정(2001). 한국사회 비혼여성들의 욕망의 억압과 탈주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소영(2002). 독신의 시간사용과 여가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0권 6호.
- 이기숙·공미혜·김득성·김은경·손태홍·오경희·전영주(2002). 결혼의 기술. 서울:신정.
- 이영숙·박경란(2003). 대학생이 인지하는 독신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10호.
- 장현숙(2002). 독신의 심리적 성향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0권 6호.
- 전옥실(2000). 독신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유계숙(1998). 결혼학개론. 서울:상명대학교 출판부.
- 통계청(2001).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국민일보 2004. 8. 26일자 21면 독신가정.
- 내일신문 2004. 9. 20일자 19면 오늘의 대학생을 말한다.
- 서울신문 2004. 8. 11일자 25면 30대 미혼남녀의 속마음.
- 세계일보 2003. 7. 28일자 35면 화려한 Single, 결혼은 선택...자유를 즐긴다.
- 조선일보 2001. 8. 25일자 21면 애인으로 평생 사는 커플 등장.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Single Life

Myungsook Koo* , Sanguk Hong**

An increase of single people ha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mong recent social changes. As society has diversified, marriage and family life are recognized as something optional not required. Consequently, single life has been spread as an alternative. Social prejudice and repression on single life, however, haven't been abolished yet. For successful adaptation of single life, it should be understood correctly in society. This study is to provide how university students, who are known to be open-minded, recognize single lif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 First, university students are shown to prefer single life, which is more dominant in female students. Second, students chose 'freedom in life' as a major reason for single life. However,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between male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Male students pointed 'livelihood and family supporting' whereas female students pointed 'obstacle in one's growth' about marriage. Third, as a demerit of single life, they answered 'uncomfortableness in everyday life' such as housework for men and 'social prejudice' for women.

Recently, young generation recognizes that not only marriage but also their work are important in their lives, which leads to deferring or give-up of marriage due to 'investment on their work or themselves', ultimately to increase of single people. With regard to overall perceptions of single life, freedom of life, spatial independency, achievement through work, enjoying leisure and self-development are pointed as positive elements and uneasiness on absence of support in case of emergency or sickness and social repression

* Lecture, Silla University

** Prof.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Yeongnam University

are pointed as negative elements of single life.

The survey shows that university students are not influenced by attitude that society generally endows to single people. The students have more positive perceptions on single people, which is more dominant in female students.

Such changes in perceptions should be spread through the whole society and followed by substantial changes in policy as western countries did. We are not able to deny the fact that single life is a newly established pattern of life whether it is voluntary or not. It is high time that support policy by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was carried out satisfying needs of single people on welfare.

